KoDATA 개인 신용평가체계 공시

2020.12.31

1. 개인 신용평점의 정의 및 목적

① 개인 신용평점이란?

개인 신용평점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의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1~1,000점)한 지표입니다. 개인 신용평점이 낮을수록 향후 1년 내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개인 신용평점은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거래를 유지·설정 시 참고지표로 활용됩니다.

② 개인 신용평점의 활용

활용기관	활용기관의 예	활용 사례
금융회사	은행, 카드, 할부금융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대출실행, 카드개설 등의 의사 결정 시 참고지표로 활용
비 금융회사	대부업/대부중개업	대출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
	일반 기업체	대리점관리, 신용거래개설, 통신 다회선 이용 등의 의사 결정 시 참고지표로 활용

③ 금융회사 내부신용평점시스템

금융회사에는 자체 내부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 CSS)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내부신용평점시스템은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CB사에서 제공하는 신용평점, 신용정보 및 자체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예측하는 개인신용평가모형입니다. 금융회사는 내부 신용평점과 그 외 개인이 제공하는 직장/소득정보 등에 따라 각종 신용거래의 승인여부, 대출한도, 금리 등을 결정합니다. 금융회사 내부신용평점시스템은 활용목적에 따라 신청평점과 행동평점으로 구분됩니다.

신청평점(Application Score) : 신규 신용거래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점으로 대출 승인여부나 신용카드 발급여부와 같은 신규 거래 개설의 의사결정에 활용됩니다.

행동평점(Behavior Score) :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마다 향후 신용위험을 재평가하는 신용평점으로 대출 연장여부나 금리 변경, 신용카드 한도 상향 여부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됩니다.

2. 신용평점모형의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① 신용평점 변동의 주요 원인

◦ 신용활용고객 특성 변화

신용평가모형은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의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른 개인의 신용거래 행태 및 신용정보 변동으로 인해 신용평점 분포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책에 따른 신용정보 활용 기준 변화

정책 변동(조회정보 및 소액연체정보 활용 제한 등)에 의해 신용평가모형의 분포가 개발시와 비교하여 급격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동 등으로 신용평가모형의 분포가 크게 변화하더라도 CB사가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모형을 재조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정책 변동에 따른 영향분석에 의해 내부심사전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평점 모니터링

KoDATA는 개인 신용평점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능 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검토하여 KoDATA 개인 신용평점의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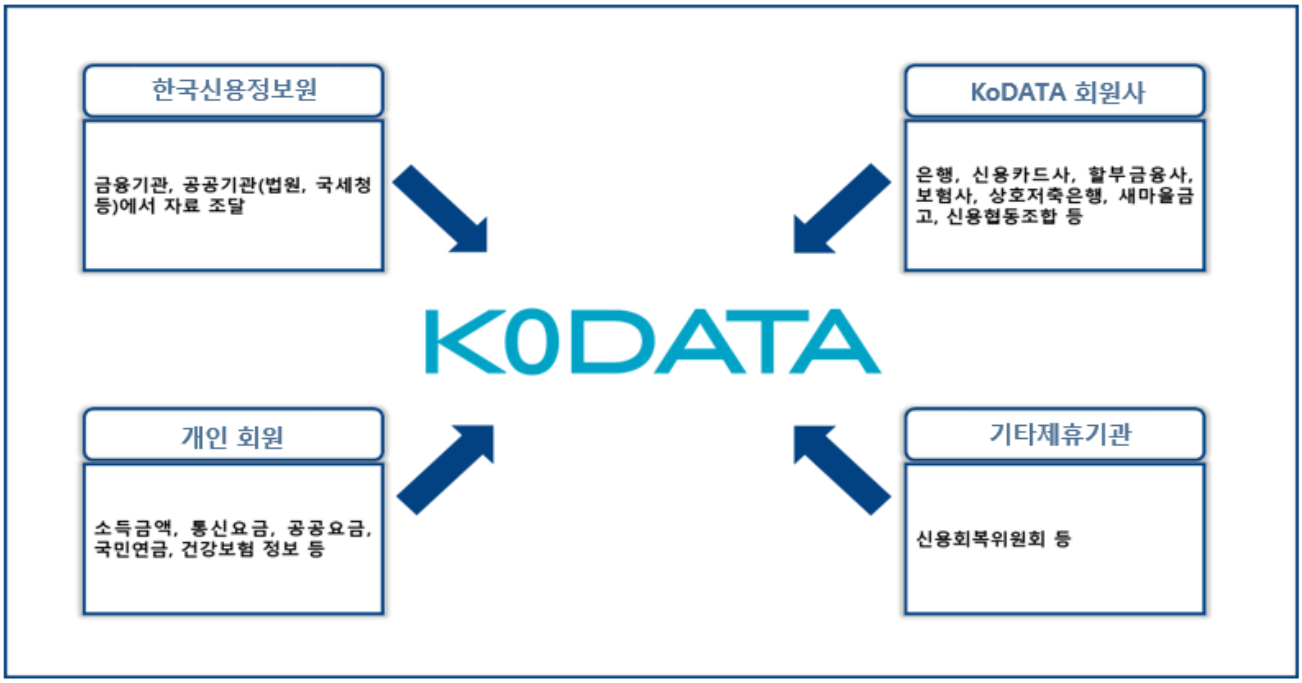
③ 신용평점의 결정

금융회사에서는 CB사의 신용평점을 참고하여 내부 심사전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서비스 중인 모형의 변동에 따라 금융회사 전략 영향 분석 및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CB사는 신용평가모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용평점의 결정은 모형 개발 시 결정되며, 신용평점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신용평가모형의 재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평가 기초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정보 수집 flow



개인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함) 제 18조 제 2항 및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제 19조에 따라 보존 및 활용되고 있습니다.

② 평가기초정보

KoDATA는 한국신용정보원 및 KoDATA회원사 등으로부터 고객이 사전 동의[주)] 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함) 제 32조에 의거한 고객의 사전제공활용 동의 필요

4. 주요 평가요소

① 평가요소

KoDATA는 상환이력정보, 현재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형태정보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직접 등록한 비금융 성실납부정보를 활용하여 건전한 신용성향을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② 신용평점의 평가요소별 평균적인 변동(상승/하락) 요인 및 비중

평가영역	신용평가요소	평가기준/영향도[주]		평가개요
		일반대상	장기연체 경험대상	
상환이력	연체건수 및 금액	-	-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평가요소이며 특히 90 일 이상의 연체는 장기연체로 분류되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체 상환 시 부정적 영향은 축소되지만 연체경험정보는 일정기간(90 일 이상 최장 5 년, 90 일 미만 최장 3 년) 활용됩니다.
	연체일수	--	--	
	연체상환 후 경과일수	+	+	
	연체상환형태	+		
	비중	10%	36%	
부채수준	총 대출건수 (기관수)	-	--	현재 보유한 채무의 수준으로 대출, 카드의 부채 개설 및 상환이력·실적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상환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채무 증가 시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되며 채무상환의 이력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대출 금액	-	-	
	대출규모 대비 상환율	+		
	단기카드대출 금액	-		
	비중	55%	36%	
신용거래 기간	신용거래 기간	++	+	신용거래기간은 대출·카드의 개설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금융거래 경험을 쌓은 고객은 일반적인 리스크 수준이 낮게 나타나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용거래 개설	+		
	비중	17%	8%	
신용거래 형태	신용/체크카드 사용형태	+	+	
	단기카드대출 사용형태	-	--	
	비중	18%	25%	

비금융 정보	소득금액증명	+	+	
	비금융정보 성실상환	+	+	

주) 제시된 비중은 해당 고객군별 평균이며, 개별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신용평점 활용정보 수집처 및 활용 기간

◦ [상환이력정보] 채무의 적시 상환 여부, 과거 채무상환을 미룬 경험

활용정보	수집처	활용기준	활용기간
신용도 판단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 100 만원 이상 3 개월 이상 연체	채무변제 완료 후 5 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변제 완료 후 1 년)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 지급보증, 신용보증대지급 등을 보유한 경우	
		부도정보 : 어음/수표 등의 부도 사실	
		금융질서문란정보 : 금융거래, 신용카드 관련 부당 행위자	
		관련인 정보 : 과점주주 등으로 연대보증, 어음/수표 등 부도기업의 최다출자자 등	
공공정보	한국신용정보원	500 만원 이상, 1 년(3 회) 이상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채무변제 완료 즉시 미활용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는 변제 완료 후 3 년)
		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 등의 공공정보	
		법원채무불이행정보 (법원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CB 연체정보	KoDATA 회원사	5 영업일 이상, 10 만원 이상 연체한 정보 (단, 5 년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및 신용정보사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고 30 일 미만 또는 30 만원 미만 미해제 CB 연체정보 1 건만 보유 중인 경우 미활용)	채무변제 완료 후 3 년
채무불이행정보	KoDATA	3 개월 이상이면서 50 만원 이상인 비금융권 연체	채무변제 완료 후 3 년

◦ [현재부채수준] 현재 보유한 채무의 수준

활용정보	수집처	활용기준	활용기간
대출정보	KoDATA, 한국신용정보원	대출 계좌 개설 및 해지 이력	기간제한 없음
	KoDATA	대출금 상환 이력	기간제한 없음
카드정보	KoDATA, 한국신용정보원	카드 발급 및 해지 이력	기간제한 없음
	KoDATA	카드이용실적	기간제한 없음

◦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의 기간

활용정보	수집처	활용기준	활용기간
대출정보	KoDATA, 한국신용정보원	대출 계좌 개설 및 해지 이력	기간제한 없음
카드정보	KoDATA, 한국신용정보원	카드 발급 및 해지 이력	기간제한 없음

◦ [신용형태정보] 신용거래의 종류 및 행태

활용정보	수집처	활용기준	활용기간
대출정보	KoDATA, 한국신용정보원	대출 계좌 개설 및 해지 이력	기간제한 없음
	KoDATA	대출금 상환 이력	기간제한 없음
카드정보	KoDATA, 한국신용정보원	카드 발급 및 해지 이력	기간제한 없음
	KoDATA	카드이용실적	기간제한 없음

◦ [비금융정보] 개인의 신용에 대한 관심 및 성실도

활용정보	수집처[주)]	활용기준	활용기간
비금융 정보	KoDATA	소득금액/통신요금/공공요금 등의 등록정보	최근 24 개월

주) 정보 수집처는 추후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④ 평가요소별 설명

◦ 상환이력정보

상환이력정보 부문은 채무 상환 지연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합니다.

채무를 적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체를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만약 연체 상태라면 신속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영업일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 연체 시 신용평점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며, 특히 연체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연체 중 5영업일, 해제 시 8영업일 이상 활용)
- 단, 연체이력이 1건이고 연체기간이 30일 미만 연체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평가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2018년 말부터 적용)
- 단기간 연체 후 즉시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이 증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체 사유 해소 즉시 부정적인 영향은 축소되지만 연체 경험 정보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연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연체 상환 후 신용평점은 연체 전으로 즉시 회복되지 않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상승합니다.
- 과거 연체 경험이나 기간을 고려하여 실수에 의한 연체라고 판단될 경우 평점 회복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는 반면, 장기연체는 채무상환 후 더 오랜 기간 동안 평점에 부정적으로 반영됩니다.

◦ 현재부채수준

현재부채수준 부문은 대출·카드의 개설, 해지, 상환이력 및 이용실적 등 거래내역을 활용합니다.

적정 수준의 부채 이용은 신용평점에 긍정적이지만 현재부채수준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대출금액이 클 경우 고객의 상환능력 대비 부채가 과도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신용평점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기간 부문은 대출·카드의 개설 및 해지 이력을 활용합니다.

신용거래기간이 장기일수록 신용평점에 긍정적입니다.

-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금융거래 경험을 쌓은 고객은 단기 신용거래자(예: 신용카드를 갓 개설한 사회초년생)보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수준이 낮게 나타나므로 신용평점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 신용거래 경험이 없으면 고객의 신용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無신용거래보다 신용평점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 **신용형태정보**

신용형태정보 부문은 대출·카드의 개설, 해지, 상환이력 및 이용실적 등 거래내역을 활용합니다.

현재부채수준이 과도할 경우 특히, 고금리 유형의 대출 거래 비중이 클수록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대출을 여러 금융회사에 보유하는 것은 고객의 상환능력 대비 부채가 과도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신용평점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저금리 대출 위주로 채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비금융정보**

비금융정보 부문은 개인의 신용에 대한 관심과 성실도를 판단합니다.

소득금액증명 및 통신요금,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납부정보 등록은 개인의 신용관리 성실도를 입증하는 가점부여에 활용됩니다.

- 비금융거래에서 성실하게 납부한 내용이 증빙될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 정보의 등록은 신용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며, 장기간 정상 납부이력이 있을 경우 개인의 성실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점이 부여됩니다.

5. 평가모형의 성능지표

① 성능지표의 적정성

성능지표란 개인 신용평점의 목표인 각 개인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했는가(변별력)와 그 결과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안정성)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수치화한 것입니다.

구분	성능지표	적정기준치	KoDATA 개인 신용평점
변별력	K-S 통계량 (Kolmogorov-Smirnov)	50 이상	충족
	지니(GINI) 계수	0.6 이상	충족
안정성	PSI (Population Stability Index)	0.1 미만	충족

② 평가인력의 적정성

신용조회업 설립요건 중 상시 고용인력으로 아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을 규정하며(신용정보법 시행령 제6조), KoDATA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 기술사, 기술거래사 또는 변리사
- 3년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 3년 이상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 3년 이상 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정보분석 및 정보기획업무 등을 포함한다)에 종사했던 사람
- 3년 이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개인 신용평가 관련통계

① 개인 신용평점별 인원분포

신용평점	2018 년 말	2019 년 말
950 이상	2,759,841	3,167,257
900 이상	12,244,059	12,645,985
850 이상	6,672,021	6,865,492
800 이상	3,966,568	3,763,199
750 이상	2,327,720	2,215,993
700 이상	1,553,379	1,511,445
650 이상	1,974,159	1,960,853
600 이상	1,662,376	1,614,668
600 미만	1,216,543	1,240,217
합계	34,376,666	34,985,109

② 개인 신용평점별 불량률[주)]

신용평점	2017 년 말	2018 년 말
950 이상	0.05%	0.06%
900 이상	0.10%	0.10%
850 이상	0.31%	0.31%
800 이상	0.94%	0.97%
750 이상	1.93%	2.07%
700 이상	3.78%	4.19%
650 이상	7.23%	7.32%
600 이상	10.51%	10.01%
600 미만	14.72%	14.00%
전체	1.09%	1.09%

주) 불량률은 기준시점으로부터 1년간 한국신용정보원(구 전국은행연합회)에 장기연체정보(90일 이상)가 등록된 인원의 비율이며, 2018년 12월말 불량률은 대상자의 2019년 12월말 실측 불량률입니다.

③ 신용거래고객의 개인 신용평점별 인원분포

◦ 대출거래고객

신용평점	2018 년 말	2019 년 말
950 이상	980,094	1,104,077
900 이상	5,815,241	6,062,214
850 이상	3,937,282	4,097,476
800 이상	3,258,139	3,111,482
750 이상	2,249,046	2,151,450
700 이상	1,274,685	1,269,445
650 이상	1,262,459	1,296,374
600 이상	1,224,405	1,238,886
600 미만	1,135,657	1,164,975
합계	21,137,008	21,496,379

◦ 신용카드거래고객

신용평점	2018 년 말	2019 년 말
950 이상	2,759,841	3,167,257
900 이상	12,244,059	12,645,985
850 이상	6,672,021	6,865,492
800 이상	2,856,703	2,710,987
750 이상	1,577,529	1,523,165
700 이상	1,234,417	1,232,610
650 이상	963,989	979,548
600 이상	837,142	841,554
600 미만	782,598	820,576
합계	29,928,299	30,787,174

7. 점수제 변환에 따른 관련 법령상 기준

각 법령에 해당하는 점수는 매년 4월1일자로 변경됩니다. (단, 2021년은 변경 없음)

해당 점수는 KoDATA 신용평가점수 기준이며, 신용평가회사마다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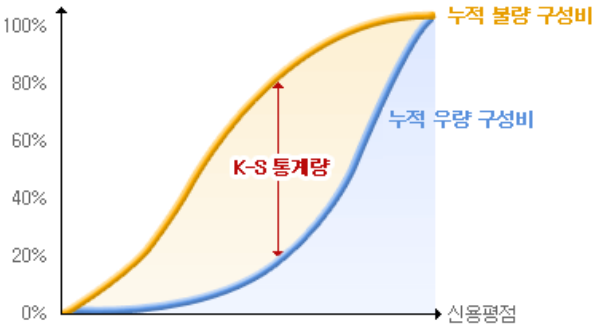
(19년 말 기준)

관련법령	내용	개정 전 기준	개정 후 기준	기준점수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감독규정	중도금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4 등급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891 점 이하
은행·보험·저축은행 감독규정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	7 등급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664 점 이하
서민금융법 고시	미소금융 등 대상	6 등급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770 점 이하
여전업 감독규정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6 등급 이상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639 점 이상

8. 성능지표 산출원리

① K-S 통계량 (Kolmogorov-Smirnov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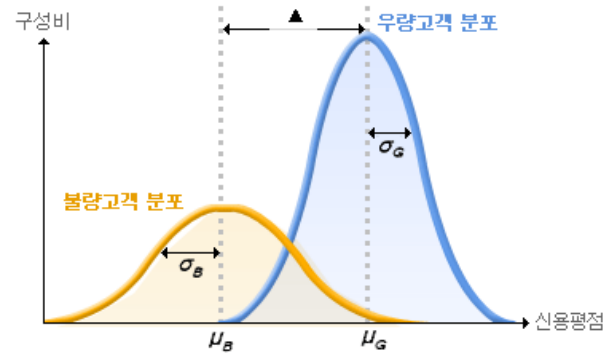
K-S 통계량은 신용평점별로 누적 우량 구성비와 누적 불량 구성비를 산출한 후, 그 차이의 최대값으로 모형의 성능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K-S 통계량이 클수록 변별력이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 K-S =
  Max | 누적우량구성비 - 누적불량구성비 |
  : 우불량 누적분포 사이의 Maximum Separation

② 발산 (Diver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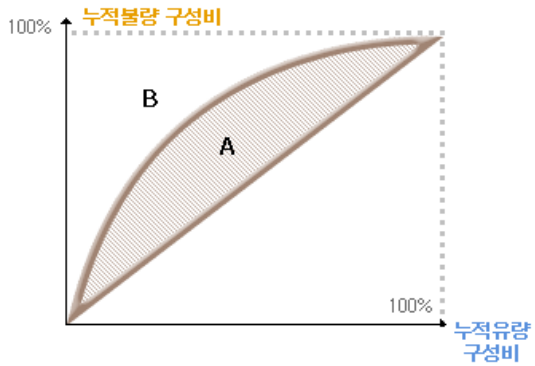
발산값은 불량고객 분포와 우량고객 분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신용평점에 따른 불량고객 분포와 우량고객 분포 간의 거리가 멀수록, 각 분포가 넓게 퍼지지 않고 집중될수록 발산값의 크기가 커지며, 수치가 클수록 좋은 변별력을 의미합니다.



- Divergence = $\frac{(\mu_G - \mu_B)^2}{(\sigma_G^2 + \sigma_B^2)/2}$

③ 지니(GINI) 계수

지니(GINI) 계수는 누적우량 구성비를 x축으로, 누적불량 구성비를 y축으로 나타낸 그래프와 Random Curve 사이의 면적의 합에 비례하며, 면적이 넓을수록 높은 변별력을 의미합니다.



[GINI 계수]

- $GINI = \frac{A}{A + B}$

※ GINI 계수는 A면적의 크기에 비례하며, 값이 클수록 높은 변별력을 의미함

④ PSI (Population Stability Index)

PSI는 모집단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기준시점 대비 현재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며 수치가 클수록 모집단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PSI = \sum_{\text{점수대별}} (\%O - \%E) \cdot \ln\frac{\%O}{\%E}$ (%E : 기준시점 구성비, %O : 현재 구성비)

◦ [예제] PSI계산

점수대	기준시점 고객수	현재 고객수	기준시점 구성비 (%E)	현재 구성비 (%O)	%O-%E	ln(%O/%E)	PSI
76~100	600	700	20.0%	21.9%	1.9%	0.0896	0.0017
51~75	1,000	900	33.3%	28.1%	-5.2%	-0.1699	0.0088
26~50	1,000	1,100	33.3%	34.4%	1.0%	0.0308	0.0003
0~25	400	500	13.3%	15.6%	2.3%	0.1586	0.0036
합계	3,000	3,200	100%	100%	-	-	0.0144

PSI = 0.0144